

01

베트남

Vietnam

사람 좋고 누릴 것 많은 나라, 베트남

- › 활동기관 : 베트남 기획투자부
- › 자문분야 : 산업 기술
- › 자문내용 : SME 자문
- › 성 명 : 정 덕 기



하노이의 사람들

선진국을 다녀 본 사람들이 베트남에 오면 확연히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놀랄 것이다. 택시를 타면 운전하는 아이들이 짐을 싣는 걸 도와줄 정도로 친절하다. 물론 가끔 시내에는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있어 나 역시 10배나 바가지를 쓴 적도 있지만 그래 봐야 5,000원 수준. 커피숍에서 지갑을 두고 나온 친구가 1시간 후에 다시 찾아갔더니 테이프 로 봉하여 보관하다 돌려줬다는 이야기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랄까. 여기는 돈의 단위가 커서 백만은 가볍게 나오니까 간혹 잘못 내는 경우가 있다. 한번은 8만 동(4,000원)을 잘못 알아듣고 100만 동을 낸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내 지갑을 열어 자기가 해당 금액만큼만 가져가는 게 아닌가. 다른 나라였다면 횡재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느 집에서는 우산을 놓고 나왔더니 100m도 넘는 길을 따라와서 돌려주기도 했다.

베트남의 재미있는 부분은 길을 건너는 것이다. 큰길이든 작은 길이든 건너고 싶을 때 아무데서나 건너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차나 오토바이가 피해 갈 수 있도록 천천히 건너야 한다는 것이다. 재미 삼아 눈을 감고 길을 건너봤는데 오히려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차와 오토바이들이 피해 주는 것이 아닌가. 아마 우리나라였다면 여기저기서 경적이 울리고 자칫 사고가 났을 일인데 말이다.

버스를 타고 구경을 다니는 재미도 쏠쏠하다. 레닌 동상, 국회의사당, 호치민 묘소, 타이호 등 많은 관광지를 두루 거치고도 요금은 7,000동(350원)이면 그만이었다. 다만 버스를 타기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건 고마우면서도 민망한 일이었다.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양보 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곳에서는 양보를 하지 않으면 차장이 앉아 있는 젊은 사람을 직접 일으켜 세우기까지 한다. 시내에 나갈 때 사기 당할 염려가 있는 조그만 택시보단 낫았지만 마음이 따뜻한 버스가 낫다고 생각한다.



하노이 사람들 소득 수준은 대충 이렇다. 공무원들 급여는 적게는 13만 원, 많게는 20만 원 수준이다. 국장급은 35만 원이고, 장관급이 되어야 50만 원을 넘는 모양이다. 사기업으로 가면 2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최근 삼성이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우수 인력들을 싹쓸이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한국으로 초청하되 왕복 항공료, 숙박비, 그리고 선물을 살 현금 조금이면 그야말로 끝이다. 비행기 표만 사서 오면 나머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건 소용이 없다. 일단 비싼 비행기 표를 살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들은 좀 다르다. 선물로는 6년근 인삼이 단연 최고이다. 인삼 다음으로는 영지버섯을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선물을 주고받고, 그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곳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도 모두 공무원이다. 외제차를 타고 자녀를 외국에서 공부시키고, 고급 빌라에 사는 사람을 보면 여지 없이 공무원들이다. 아마도 월급보다 많은 부수입 덕이 아닐까 싶다. 여기서 행사를 진행하며 차관 정도 초청하고 싶다면 1,000달러 정도 비용이 든다. 가끔 중요 행사에 장관급이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돈 준다는 얘길 안 해서 그런 것이다. 원하는 게 뭔지 몰랐으니까. 앞으로 베트남 사람들 만난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상한 선물이나 맛있는 식사보다 인삼이나 영지버섯, 그것도 아니면 알아서 사라며 현금

을 주는 게...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된다.

여기 사람들의 특이한 점은 만나면 다짜고짜 나이를 묻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이를 묻는 걸 실례라고 배워 온 내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곳 사람들이 나이를 묻는 건 호칭 때문이다. 나이를 알아야 호칭을 ‘양’이라고 할지, ‘엠’이라고 할지, 아니면 ‘찌’라고 할지 결정되니까. 나이도 우리처럼 어머니 뱃속에 있는 기간을 감안해 1년을 더해서 쓴다. 다만 절대로 여기 사람들을 얕보거나 자존심 건들이면 안 된다. 베트남 사람들은 영리하고 부지런하며, 아울러 눈치가 빠르다.

오토바이 중심의 하노이 교통

하노이에서 내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택시이다. 다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아무거나 타면 곤란을 겪기도 한다. ‘마일링’이라는 초록색 택시나 큰 회사 택시는 몰라도 나머진 자칫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요금은 8,000동(400원)이 기본요금인데, 그마저도 택시 회사마다 달라 어떤 택시는 1만동을 기본요금으로 받는다. 집에서 시내까지 18만동(9,000원)이 나오기도 했으니까 다른 물가에 비해선 비싼 편이다.

한편 버스는 거리에 상관없이 7,000동(350원)이다, 너무 간격이 길고 노후해 시간이 느긋한 휴일에나 이용하고 있다. 평일에는 만원 버스가 되는데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가끔은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애용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 한 달 20만 동(1만 원)인 정액권을 끊어서...

택시나 버스가 아무리 많아도 단연 베트남 교통의 진수는 오토바이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타는 최고의 교통수단.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사고가 많지 않은 것 같다. 통계로는 하루 몇 백 명이 사고를 당한다는데 베트남에 머무는 동안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다. 길을 건널 때 벌 때 같이 몰려드는 오토바이에 처음엔 겁을 먹었지만,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오토바이를 타는 여성들을 보면 대부분 팔이 긴 점퍼를 입는다. 마스크까지 착용해서 무슨 유니폼처럼 보이곤 한다. 비가 내려도 비옷을 입거나 비막이(비를 막는 오토바이 커버)를 걸치고 오토바이를 탄다. 모양도 가지각색이다. 어떤 사람은 비옷으로 상하의를 입



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뿐 아니라 오토바이 전체를 비막이로 둘러싸기도 한다. 자신과 뒤에 탄 사람까지 막는 비막이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가 빨간색이면 비막이도 빨간색, 자기 옷이 초록색이면 비막이도 초록색으로 맞추는 게 일반적이다. 그 와중에 여자들은 비옷을 입거나 비막이를 해도 다리를 드러내곤 한다. 하노이에서는 비막이가 최고의 패션 아이템인 셈이다.

생각해보면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야하고 탈 줄 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모두 차로 바꾸면 그때 정말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 차라리 오토바이를 제대로 활성화하는 게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려면 먼저 오토바이 전용 차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승용차가 아무리 좋아도 제 기능을 못한다. 얼마 전 승용차로 하롱베이를 다녀왔는데 두 번 다시 할 짓이 아니었다. 2차선 도로에서 계속 위협하게 추월해야 하니까 보기만 해도 신경이 곤두섰다. 가끔 반대 차선에서 돌진하는 오토바이들 보면 비명이 절로 나왔다. 고작 150km를 가는 데 소요된 시간만 4시간. 내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나도 모르게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베트남에서 장거리 이동은 가급적 대형차를 이용하는 게 좋다.

여긴 아직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30~40년 전 모습이다. 비가 오면 길에 진흙이 넘쳐 신발이 더러워진다. 교차로에서는 차량과 오토바이, 자전거와 사람들이 뒤엉켜서 혼잡 그 자체. 여기서는 차나 사람이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권리가 똑같은 것 같다. 신호등은 참

고 사항일 뿐. 그럼에도 사고가 많지 않고 욕설이 들리지 않는 게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다. 도로는 항상 뒤엉키는데도 별로 싸우진 않는다.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신세계로 보이기도 한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음식들

겨울에는 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늘이 뿌옇게 변한다던데, 10월인 벌써부터 그렇다. 이유를 물어보면 오토바이가 많아서 그렇다고들 한다. 그런데... 얼마 전 북서쪽으로 60km 떨어진 지역을 다녀와 보니까 요즘이 수확 철이라서 그런지 논밭에서 벼단을 태우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내 생각에는 하늘이 뿌연 주범은 벼단 태우는 연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교외로 나갔을 때 보니까 여기저기 ‘CHO’라고 간판에 많이 보였다. 물어보니 이곳에선 CHO가 개를 의미한다고. 결국 전부 개고기를 파는 집이었던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처럼 개고기를 좋아하는데 대부분 음력으로 월초에는 안 먹고 마지막 날에 많이 먹는다고 한다. 요리 종류만 7가지나 된다고 한다. 시장에 가면 통째로 그을린 개고기도 보이는데, 과거 시골 오일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베트남의 음식 이야기에서 쌀국수를 빠뜨릴 수 없다. 쌀국수에는 2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쌀국수에 소고기를 넣은 ‘PHO BO’이고 다른 하나는 닭고기를 넣은 ‘PHO GA’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국수를 ‘포’라고 알고 있는데 현지에서 그렇게 주문하면 절대 못 알아듣는다. ‘포’가 아닌 ‘피’라고 발음해야 하고, 그것도 성조 때문에 낮게 시작해서 더 낮게 끝나야 알아듣는다.



쌀국수 다음으로 유명한 음식은 ‘분짜’라고 하는 음식이다. 분짜를 주문하면 국수 국물에 삼겹살과 동그랑땡을 넣어 주고 따로 국수와 야채를 준다. 국물에 넣어서 꺼내 먹는 방식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삼겹살을 국물에 넣어 먹는 게 좀 그래서 따로 달라고 주문하는 편이다. ‘로’ 역시 하노이에서 먹어봐야 할 주요 음식 중 하나이다. 원리는 샤브샤브와 동인한데, 국물을 끓이면서 소고기와 두부, 야채, 라면을 넣어 먹는다. 이 역시 주문할 때 발음이 중요한데, 낮게 시작해서 더 낮게... 100번 넘게 따라 한 것 같은데 끝내 제대로 된 발음은 실패했다.

보통 회사나 관공서에는 구내식당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식판이 조금 작고 국물 맛이 별로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김치가 없는 게 가장 큰 흠이다.

내겐 너무나 어려운 베트남어

아직 베트남 말은 전혀 못하는 수준인데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가 한심했다.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 벽마다 단어와 숙어를 써 붙이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직 쌀국수 ‘쩌’조차 통하지 않는 수준이다. 열심히는 하지만 정작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게으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여기 글자들 특히 모음은 샷갓도 쓰고, 뒤집어도 쓰고, 번개 표도 있고, 점도 있고, 물음표도 있다. 알파벳을 쓰니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베트남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배우는데, 실력들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아마도 똑같은 알파벳을 두고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발음하기 때문이 아닐까?

베트남은 글자가 복잡해서 발음도 복잡하고 게다가 성조가 더해지니까 너무 어렵다. 단어 수백 개를 알아도 소용없는 이유가 바로 이 발음 때문이다. 베트남어를 배우려는 사람

들은 단어보다 한 쪽이라도 제대로 읽는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쌀국수 ‘피’조차 발음하지 못해 매번 다른 음식을 먹는다면... 베트남어는 모음이 매우 발달했다. 우리처럼 ‘ㄱ’와 ‘ㄴ’도 있다. 또 ‘아’와 ‘어’의 중간 발음도 있고, ‘아’ 발음도 길게 할 때와 짧게 할 때가 다르다. 게다가 성조까지 더해지면... 1쪽이라도 제대로 읽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자음도 영어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TR은 ‘ㅈ’으로 읽는데, Natrang의 경우 ‘나트랑’이 아니라 ‘나짱’으로 읽어야 한다. D도 ‘즈’으로 읽어야 하는데, 다만 D에 가운데 줄이 있으면 ‘즈’이 아닌 ‘ㄷ’가 된다. 여기에 격음도 많은데 T는 ‘ㅌ’, C는 ‘ㅍ’으로 발음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발음은 NG 발음이다. NGUYEN의 발음이 ‘응엔’인지, ‘구엔’인지 여전히 헷갈린다. J는 아예 없고, ‘크’ 발음도 없다.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살’이라 발음하는 것처럼 이곳 사람들은 ‘서울’을 ‘서운’이라 발음한다.

예전에 말레이시아에서 모든 사람들 이름에 성이 없는 것을 듣고 놀란 적이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이름 맨 뒤에 있는 걸 부르면 왜 자꾸 아버지 이름을 부르냐고 투정했었다. 여긴 또 달랐다. 성은 있는데 성을 부르면 안 되고, 이름의 마지막 단어를 불러야 한다. 구엔이 70%를 차지해서 성이 아닌 이름의 맨 뒤를 부르기로 했다는 것이다.

같은 말을 100번을 따라 해도 안 될 정도로 베트남 언어는 어렵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다. 하지만 현지 언어를 몰라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는 것은 한국인에 대한 호감일 터. 가끔 한국에 시집간 베트남 여자들이 매를 맞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팻지엠’을 다녀오다

12월은 12월이다. 여기도 추위가 다가오니 모두 점퍼를 입고 있다. 베트남의 겨울은 내내 비가 온다고 한다. 여름도 습기가 많은데 겨울까지... 제습기 사업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얼마 전에는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150km 떨어진 ‘팟지엠(Phat Diem)’이라는 곳에 강의를 다녀왔다. 200년 된 성당이 있는데 엄청난 규모에 벽마다 빈틈없는 조각들까지 그야말로 신비로웠다. 본 건물에 부속 성당 대여섯 개가 있는 구조였는데, 앞에는 호수 공원이 있고, 뒤에는 정원이 있었다. 돌로 지은 건축물에 십자가가 걸려서 아마도 동서양의 짬뽕된 양식이랄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곳을 찾는 서양 사람들은 많은 반면 한국인 관광객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시조는 HUNG 왕으로, 우리 단군과 비슷하게 4,000년이 넘었다고 한다. 부모가 낳은 알에서 태어난 100명 중 50명은 산에, 50명은 바다에 정착시켰는데, 그중 한 명이 HUNG 왕이란다. 하노이 북쪽 90km 지역에 사당이 있고 좌우로 아버지, 어머니 사당이 있는데 사당마다 하나의 산에 있으니까 전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4월 말에 기념일이 있는데, 방문객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베트남에서는 사당과 절이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사당은 ‘Temple’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작은 편이면서 주로 남자들만 다닌다. 불교의 절은 ‘Pagoda’라고 하는데 규모가 큰 만큼 여자들도 많이 다닌다. 대부분 종교를 물으면 불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불교와 토속 신앙이 섞인 형태이다. 집이나 상점, 회사에도 입구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음력 월초가 되면 꽃과 향과 음식으로 제사를 올린다.

베트남 최대의 명절, ‘땃’

우리나라에서 설날이 명절이듯 베트남도 땃(Tet)을 최고의 명절로 여긴다. 땃은 땃 응 우엔 단(Tet Nguyen Dan)의 약자로 ‘원단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송년회나 신년 하례회 모두 땃을 기준으로 진행되는데, 이곳의 송년회는 우리나라와 달리 점심시간에 이뤄진다. 함께 점심을 먹은 후 노래방을 가는 게 보통. 베트남 역시 명절을 가족과 보내려는 사람이 많은데, 가까운 곳은 오토바이로, 먼 곳은 며칠씩 달리는 버스와 기차를 이용하여 가슴 벅찬 귀향길 대장정에 오른다.

9일간의 땃 연휴를 마치고 출근하니 사무실 문마다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표시를 해 뒀다. 그제야 땃 연휴 이후 첫날은 일을 하지 않고 신년 하례회를 진행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시무식과 같은 행사쯤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행사에 참여해 보니 전혀 다른 성격의 자리였다. 강당에 부서별로 둘러앉은 사람들은 과자, 와인, 음료수 등을 두고 담소를 즐겼다. 그것이 다였다. 단상을 기준으로 줄을 맞출 필요도, 누군가의 연설도 없었다.

신년 하례회에서는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돈을 선물한다. 이를 ‘땃 머니’라고 하는데, 특별한 형식은 없었다. 봉투에 넣어도 안 넣어도 그만이고, 봉투 모양이나 색깔도 정해지게 없었다. 사전에 듣기로는 붉은색 돈만 준비한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 돈의 색깔도 상관하지 않았다. 금액 수준을 보면 국장은 10만 동, 차관은 8만 동, 부국장이나 과장은 5



만 동 정도였는데, 신권으로 준비해 모두에게 나눠줬다. 일반 직원들은 받기만 하면 되었다. 다만 돈에 인쇄되어 있는 일련번호에 ‘8’이 있으면 좋다고 속설 때문에 받은 돈의 번호를 확인하느라 부산해 보이기는 했다.

한쪽 구석에 있는 나무에는 조그만 봉투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나이 순서에 따라 하나씩 봉투를 따는데, 봉투에는 많게는 50만 동(약25,000원)부터 돈 없이 덕담만 적힌 팜까지 있었다. 점을 보는 걸 좋아하는 현지 사람들이고 보니 아마도 한 해의 운세와 연결되는 이벤트 같았다. 그렇게 웃고 즐기다 보면 상부 기관이나 같은 건물의 다른 기관에서 인사를 와서 또 한 차례 돈을 돌리고 나무에서 봉투를 따고, 조금 있으면 또 다른데서 와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렇게 한나절이 후딱 지나간다.



적극적이고 똑똑한 하노이의 여성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1975년 UN에서 지정한 기념일인데, 사실 한국에 있을 때에는 그런 날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이 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밸런타인데이처럼 모든 여성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 전하는 날이었고, 가족에게는 반드시 꽃과 그 이상을 줘야만 하는 날이었다.

여성의 날을 거론한 김에 하노이 여자들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본다. 먼저 하노이 여자들은 모두 오토바이를 잘 탄다. 과거 말레이시아에서도 수많은 오토바이를 봤지만 여자가 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 같다. 그것도 짧은 치마나 반바지에 뒤집어쓰는 모자와 마스크, 긴팔 상의를 입고, 왜인지는 잘 모르지만 오토바이에 앉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비슷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오토바이 이야기를 통해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하노이 여자들은 웬만하면 일을 한다. 맞벌이 아니면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럴 것일 수도 있지만, 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군가도 있다고 하니 여자들의 사회생활에 참여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된 문화인 것 같았다.



일하는 여성이 많아서인지 탁아소 혹은 유아원들이 아주 잘되어 있다. 아이가 만 2살이 되면 아이 맡기고 직장을 다시 다니기 시작하는데, 보육료는 점심 식사까지 포함해 한 달에 5만 원 안팎이라고 한다. 시간도 8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는데, 직장에서도 아이들 찾을 때는 일찍 나가도록 배려해 준다. 모여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20세가 되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예외 없이 1개월간 군대 훈련을 받기도 한다. 그래도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보면 남자들과 여자들이 따로 앉는다. 아울러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잦은데 여자들에게는 권하지 않는다.

생애 최고의 휴가를 만끽하다

이곳은 5월부터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더위의 기세가 한창인 6월과 7월에 대부분 여름휴가들을 떠난다. 대개 회사나 사무실 단위로 단체 여행을 가는데, 직원은 예외 없이 전원 참석해야 한다. 가족 중에 데리고 갈 사람이 있다면 동행해도 된다.



나 역시 얼마 전 휴가를 다녀왔다. 직원은 18명과 가족들을 포함해 총 28명이었다. 장소는 하이퐁 근처의 도선이라는 해변이었는데, 하노이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지만 자동차로 4시간 가까이 걸렸다. 일전에 승용차를 타고 하롱베이를 다녀오며 안 좋은 기억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대형 버스를 타고 가서 그런지 그때 느꼈던 불편함 등이 전혀 없었다.

도선은 휴양지로 그만이었다. 풍선 타고 달리는 배를 비롯해 서바이벌 게임, 아이들의 놀이터, 리조트 등 휴가를 즐기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아직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입소문이 나면 발리나 푸켓 이상의 휴양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했다. 밤마다 해변 길 살롱에서 저녁을 먹고, 노래방까지... 이곳에선 노래방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 듯했다. 전체 일정은 철저히 휴식을 위한 것으로 진행되었고, 특별한 행사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휴가다운 휴가였다.

해변 길 살롱은 그저 도로 옆 인도에 상을 차린 게 전부였다. 하지만 부서지는 파도 소리 들으며 즐기는 신선한 해산물은 정말 일품이었다. 오이스터, 게, 왕새우, 참치 구이 등 베트남에서 먹었던 어떤 음식과도 비교가 안 될 최고의 저녁이었다. 아니 어찌면 세계 최고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그동안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홍콩 등 여러 나라의 해산물 식당들을 경험했지만 그 어디와 비교해도 장소와 메뉴가 뛰어났다. 내가 계산을 하지 않아 정확한 가격은 몰라도 아마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싼 가격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휴가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여행이 되었다.

에필로그

그동안 나도 잘 몰랐던 사실이지만 외교 관례상 방문 순서 및 단독 방문 여부 등을 따져 볼 때 베트남은 주변 4대 강국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라고 하니 이 나라가 달리 보인다.

엄연히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적대국이었다. 베트남 전쟁 시 비둘기, 맹호, 청룡부대 등 한국군이 파병되었고 총부리를 겨눴던 나라이다. 그런데 하노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적대감이 전혀 없다. 베트남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지역의 모내기를 돕고 마을에 학교나 회관 등을 건설해 주는 등 대민 사업에 힘썼기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당시 격전지였던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한국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 우리나라의 국제 지원이 이 지역에 집중되는 것도 모두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 생각해 본다.

과거야 어쨌든 현재 베트남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나라이며, 앞으로도 아주 긴밀히 협조해야 할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다시 말해 좀 더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베트남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쟁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한국 정부는 베트남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무상 지원은 물론 민간 투자 측면에서도 베트남에게 한국은 당당히 1위인 나라이다. 하노이에서 제일 높은 경남빌딩과 두 번째 높은 롯데빌딩이 모두 한국계 건물이라는 점에서도 베트남 내 한국의 위상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베트남
정덕기**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前 현대종합상사 근무
- WFK NIPA Advisors – 베트남 기획투자부 중소기업 지원센터 파견